

[번역] 피터 틸 인터뷰: 아마겟돈과 정체, 그리고 적그리스도 (완역본)

진행자:

실리콘밸리는 무모할 정도로 야심만만한가요? 우리는 무엇을 더 두려워해야 할까요? 아마겟돈일까요, 아니면 정체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자 중 한 명은 왜 적그리스도에 대해 걱정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손님은페이팔과 팰런티어의 공동 창업자이자, 도널드 트럼프와 JD 밴스의 정치 경력에 초기 투자자였던 분입니다. 피터 틸은 다양한 보수적 아이디어나 단순히 주류에 반하는 아이디어에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잘 알려진, 원조 격인 '테크 우파' 거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사상 자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억만장자라는 약간의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난 20년간 가장 영향력 있는 우파 지식인이라는 데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피터 틸 씨, '인터레스팅 타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피터 틸: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행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약 13~14년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고 싶습니다. 보수 잡지 '내셔널 리뷰'에 '미래의 종말(The End of the Future)'이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쓰셨죠. 그 에세이의 핵심 주장은, 역동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세계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역동적이지 않으며, 사실상 우리는 기술적 정체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디지털 세계가 획기적인 발전이긴 했지만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었고, 세상은 기본적으로 멈춰 섰다는 내용이었죠.

물론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당신뿐만은 아니었지만, 디지털 혁명으로 부자가 된 실리콘밸리 내부자였기에 당신의 주장은 특별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2025년인 지금, 그 진단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피터 틸:

네, 저는 여전히 '정체 가설'을 대체로 믿고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가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완전히 멈췄다는 주장은 아니었죠. 어떤 면에서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속도가 0은 아니었지만, 뭐랄까요. 1750년부터 1970년까지 200년이 넘는 기간은 변화가 가속화되던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빠르게 움직였죠. 배도, 철도도, 자동차도, 비행기도 더 빨라졌습니다. 그 정점은 콩코드 여객기와 아폴로 계획이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 온갖 차원에서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저는 늘 '비트의 세계'는 예외로 두었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터넷, 모바일 인터넷이 있었죠. 그리고 지난 10~15년 동안 암호화폐와 AI 혁명이 있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꽤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과연 이 전반적인 정체감에서 벗어날 만큼 충분한가 하는 점입니다.

'백 투 더 퓨처' 에세이에서 시작할 수 있는 인식론적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체기에 있는지 가속기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후기 현대성의 특징 중 하나는 사람들이 극도로 전문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생의 절반을 끈 이론 연구에 바치지 않고서 물리학에 진보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양자 컴퓨터는 어떻고요? 암 연구나 생명공학 같은 수많은 전문 분야는 또 어떨습니까? 그리고 암 연구의 진보는 끈 이론에 비해 얼마나

중요하게 쳐야 할까요? 이 모든 것에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파악하기 극도로 어려운 질문이죠. 이 질문에 답하기가 너무 어렵고, 점점 더 좁은 집단의 수호자들이 스스로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회의론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네, 저는 대체로 우리가 여전히 꽤 멈춰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멈춘 건 아니지만요.

진행자:

'백 투 더 퓨처'를 언급하셨는데, 마침 아이들에게 원작을 보여줬습니다. 마이클 J. 폭스가 나온 첫 편 말이죠. 1955년에서 1985년으로, 30년을 거슬러 올라가죠. 그리고 '백 투 더 퓨처 2'는 1985년에서 2015년으로 갔는데, 그 2015년이 이제는 10년 전 과거가 되었네요. 그 영화 속에는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있었죠. 2015년의 미래는 1985년과 엄청나게 달랐습니다. 물론 2015년의 미래에는 비프 태년이 도널드 트럼프 같은 인물로 권력을 잡는 모습이 나오긴 했죠. 어느 정도 예지력이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큰 차이는 바로 물리적인 환경이 얼마나 달라 보이는가 하는 점입니다. 제가 들어본 정체에 대한 가장 강력한 주장 중 하나는, 타임머신에 사람을 태워 여러 시점으로 보내보면, 1860년이나 1890년에서 1970년으로 갔다면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있다는 것을 깨달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2025년의 아이들인 제 아이들에게 1985년은, 자동차가 좀 다르고 아무도 휴대폰을 안 쓰지만 세상은 꽤 비슷해 보인다는 거죠. 이건 비통계적이지만, 상식적인 이해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당신에게 우리가 '도약기(takeoff)'를 살고 있다고 확신하게 할까요? 단지 경제 성장인가요, 생산성 증가인가요? 당신이 보는 정체 대 역동성을 나타내는 수치가 있습니까?

피터 틸:

물론이죠. 경제적 수치라면 부모님 세대와 비교한 당신의 생활 수준이 될 겁니다. 당신이 30대 밀레니얼 세대라면, 당신의 부모님인 베이비부머 세대가 30살이었을 때와 비교해서 지금 당신의 삶은 어떤가요? 그들은 그때 어땠을까요?

지적인 질문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돌파구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것들을 어떻게 계량화할 것인가? 연구에 투신했을 때의 수익은 어떤가? 과학계나 학계 전반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한 수익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제가 그 기관들을 사회병질적이고 맬서스주의적인 기관처럼 느끼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같은 수익을 얻기 위해 점점 더 많은 것을 쏟아부어야 하고, 어느 순간 사람들은 포기하고 시스템은 붕괴하니까요.

진행자:

바로 그 지점을 짚어보죠. 우리는 왜 성장과 역동성을 원해야 할까요? 당신이 이 주제에 대한 주장들에서 지적했듯이, 당신이 상황이 느려지고 정체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1970년대 무렵 서구 세계에는 일종의 문화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성장의 대가, 특히 환경적 대가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기 시작한 거죠. 결국 '우리는 충분히 부유하고, 이보다 더 부유해지려 너무 애쓰면 지구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 종류의 파괴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현재에 만족해야 한다'는 시각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주장의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피터 틸:

저는 정체가 일어난 데에는 깊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에 대해 항상 세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는 '왜 일어났는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고갈되었고, 제 생각에 어느 정도는 제도가 퇴화하고 위험 회피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묘사할 수 있는 이런 문화적 변화들이 있었죠.

하지만 저는 또한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매우 정당한 걱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진보를 가속화한다면, 환경적 대재앙이나 핵 대재앙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래로 돌아갈 길을 찾지 못한다면, 저는 사회가... 와해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중산층이라는 방식이요. 저는 중산층을 '자녀가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 기대하는 사람들'로 정의합니다. 그 기대가 무너지면, 우리는 더 이상 중산층 사회가 아닌 겁니다. 어쩌면 모든 것이 항상 정적이고 고착된 봉건 사회를 가질 수도 있겠죠. 아니면 완전히 다른 사회로 전환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서구 세계가, 미국이 건국 후 첫 200년간 작동해온 방식이 아닙니다.

진행자:

결국 평범한 사람들은 정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그 반란 과정에서 주변의 것들을 무너뜨리며 저항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피터 탈: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혹은 우리의 제도가 작동하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제도는 성장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확실히 성장을 전제로 짜여 있죠. 레이건과 오바마를 예로 들면, 레이건은 모순적인 '소비 자본주의'였습니다. 자본가처럼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 돈을 빌리는 거죠. 오바마는 레이건의 소비 자본주의만큼이나 모순적인 '저세금 사회주의'였습니다. 물론 저세금 사회주의가 고세금 사회주의보다는 훨씬 낫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걱정입니다. 어느 순간 세금이 오르거나 사회주의가 끝나거나 둘 중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낙관적이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떤 안정적인 '그레타의 미래'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레타 툰베리 말이죠. 참고로, 기후 변화 반대 시위로 가장 잘 알려진 활동가 그레타 툰베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그녀가 반성장적이고, 사실상 권위주의적이며, 환경주의가 지배하는 미래의 상징과도 같겠군요.

피터 탈:

물론이죠. 하지만 우리는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일종의 '탈성장'을 추구하는 작은 스칸디나비아 마을 같은 곳에 산다면, 그건 매우 다른 사회일 겁니다. 북한 같지는 않겠지만, 엄청나게 억압적일 겁니다.

진행자:

제가 항상 인상 깊게 생각하는 점은, 사회에 이런 정체감, 제가 즐겨 쓰는 말로 '퇴폐(decadence)'감이 있을 때, 위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가고 있는 길에서 급격하게 방향을 틀 수 있는 순간을 간절히 바라는 거죠. 저는 부유한 사회가 특정 수준의 부에 도달하면 사람들이 매우 편안해지고 위험 회피적으로 변해서, 위기 없이는 퇴폐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에게 원조 격인 사례는 9/11 이후였습니다. 외교 정책 보수주의자들 사이에는 우리가 퇴폐적이고 정체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깨어나 새로운 성전을 시작하고 세계를 재편할 때라는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백히 그 끝은 매우 안 좋았죠.

피터 탈:

하지만 부시 43세(아들 부시)는 사람들에게 즉시 쇼핑하러 가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경우 반(反)퇴폐적이지 않았죠. 아마 퇴폐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역할

놀이(LARPing)를 하던 일부 네오콘 외교 정책 소집단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지배적인 분위기는 부시 43세가 사람들에게 그냥 쇼핑이나 하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퇴폐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요? 반퇴폐주의자들이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보세요, 당신들은 이 멋지고 안정적이며 편안한 사회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전쟁이나 위기, 혹은 정부의 전면적인 재편을 원합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들은 위험 속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피터 틸:

정확한 답을 드려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방향성 있는 대답은 '훨씬 더 많이'입니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 전문 분야를 훑어볼 수 있습니다. 생명공학을 보면, 치매나 알츠하이머 같은 분야에서 우리는 40~50년 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베타 아밀로이드에 완전히 매달려 있는데, 명백히 효과가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서로를 강화시켜주는 어리석은 사기판일 뿐입니다. 그러니 네, 우리는 그 분야에서 훨씬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진행자: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어가기 위해 그 예를 잠시 붙들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노화 방지 연구에서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FDA가 한발 물러서서 "알츠하이머 신약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시장에 내다 팔아도 좋다"고 말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의료 분야에서 '위험'은 어떤 모습일까요?

피터 틸:

네, 훨씬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겁니다. 질병이 있다면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이 아마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연구자들이 감수할 수 있는 위험도 훨씬 많고요. 문화적으로 제가 상상하는 모습은 초기 근대와 같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우리가 질병을 치료할 것이라 생각했고, 급진적인 수명 연장을 가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불멸은 초기 근대 프로젝트의 일부였습니다. 프랜시스 베이컨, 콩도르세가 그랬죠. 어쩌면 반기독교적이었을 수도 있고, 기독교의 영향 아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경쟁적이었죠. 기독교가 육체의 부활을 약속했다면, 과학은 정확히 똑같은 것을 약속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었을 겁니다.

1999년, 2000년에 우리가 페이팔을 운영할 때, 제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인 루크 노색은 알코어(Alcor)와 냉동인간 기술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냉동해야 한다고요. 어느 날 우리는 회사 전체를 데리고 '냉동 파티'에 갔습니다. 터퍼웨어 파티 같은 거죠. 터퍼웨어 정책을 파는 것처럼, 냉동 파티에서는... 머리만 얼리는 거였나요? 아니면 전신을...

진행자:

전신을 얼릴 수도 있고 머리만 얼릴 수도 있었죠. 머리만 하는 게 더 싸고요.

피터 틸:

끔찍했죠. 도트 매트릭스 프린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냉동 정책 서류를 인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이것 역시 기술적 정체성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쇠퇴의 징후이기도 했죠. 1999년에는 이것이 주류 견해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믿는 소수의 베이비부머 세대 견해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세대였습니다. 저는 항상 반(反)부머주의자이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 소수 부머 세대의 나르시시즘에서조차 무언가를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몇몇 부머들은 과학이

모든 질병을 치료해 줄 것이라고 여전히 믿었으니까요. 밀레니얼 세대 중에는 아무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지금은 다른 종류의 불멸을 믿는 사람들도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AI에 대한 매혹의 일부는 한계를 초월하려는 특정 비전과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정치 이야기를 한 후에 그 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정체에 대한 당신의 원래 주장에서 인상 깊었던 점 중 하나는, 그것이 주로 기술과 경제에 관한 것이었지만 꽤 넓은 범위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에세이를 쓸 당시 당신은 '시스테딩(seasteading)'에 관심이 있었죠. 경직된 서구 세계로부터 독립된 새로운 정치 체제를 건설하자는 아이디어 말입니다. 하지만 2010년대에 당신은 방향을 틀었습니다. 2016년에 당신은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한 몇 안 되는, 어쩌면 유일한 실리콘밸리의 저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신중하게 선택된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들을 지원했죠. 그들 중 한 명은 현재 미국의 부통령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을 지켜보는 관찰자로서 제 견해는, 당신이 기본적으로 정치계의 벤처 투자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정치적 현상 유지를 바꿀 수 있는 파괴적 행위자들이 있고, 여기에는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피터 탈:

물론 여러 차원이 있었습니다. 한 차원에서는, 네, 우리가 향하고 있는 빙산으로부터 타이타닉호의 방향을 바꾸거나, 비유가 뭐든 간에, 정치적 변화를 통해 사회의 경로를 정말로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훨씬 더 좁은 포부는,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같은 사람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고 말했을 때, 좋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며 야심 찬 의제일까요, 아니면 단지 우리가 더 이상 위대한 나라가 아니라는 매우 비관적인 평가일까요?

저는 트럼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10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에게 부시 시절의 그 달콤한 헛소리를 하지 않는 공화당원이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진보와 같은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우리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것은 터무니없는 환상이었습니다.

2016년에 저는 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종종 의식 수준 바로 아래에 있는 생각들이 있죠. 하지만 제가 결함하지 못했던 두 가지 생각은, 첫째, 트럼프가 진다면 아무도 나에게 화내지 않을 것이다. 둘째, 나는 그가 이길 확률이 50대 50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가 졌다면 왜 아무도 당신에게 화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피터 탈:

그냥 너무 이상한 일이었을 테고, 별로 중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이길 확률이 50대 50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들이 깊고 정체가 실망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졌던 환상은, 네, 그가 이기면 우리가 이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트럼프 이후 10년이 지난 2025년인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지점까지 발전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당신은 좀비 같은 좌파 인사는 아니지만요, 로스.

진행자:

저는 여러 가지로 불려왔습니다. 뭐든 받아들이겠습니다. 얻을 수 있는 진전은 뭐든지요. 당신의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 층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 사회가 파괴와 위험을 필요로 한다는 기본적 인식, 그리고 트럼프는 파괴이고 위험이라는 것. 둘째는 트럼프가 실제로 미국의 쇠퇴에 대한 진실을 말할 의지가 있다는 것. 그렇다면 당신은 투자자로서, 벤처 투자가로서 첫 번째 트럼프 임기에서 무언가를 얻었다고 느끼십니까? 트럼프가 첫 임기 동안 한 일 중 반(反)퇴폐적이거나 반(反)정체적이라고 느낀 것이 있다면 무엇이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을 수도 있고요.

피터 틸:

제가 원했던 것보다 더 오래 걸리고 느렸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2012년, 2013년, 2014년에 나누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2012년에 에릭 슈미트와, 2013년에 마크 앤드리슨과, 2014년에 제프 베이조스와 토론을 했습니다. 저는 정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었고, 그들 세 명 모두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다는 식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적어도 그 세 사람이 다양한 정도로 생각을 업데이트하고 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실리콘밸리가 조정한 거죠.

진행자:

실리콘밸리는 조정한 것 이상이죠. 실리콘밸리의 상당 부분이 정체 문제에 대해...

피터 틸:

정체에 대해. 하지만 실리콘밸리의 상당 부분은 2024년에는 트럼프를 지지하게 되었죠. 가장 유명하게는 물론 일론 머스크를 포함해서요.

진행자:

네, 제 설명에 따르면 이것은 정체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항상 매우 복잡하지만, 제 설명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람들을 대변하기가 매우 주저되지만, 마크 저커버그나 페이스북(메타) 같은 경우를 보면, 어떤 면에서 그는 그다지 이념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본값은 진보적인 것이었고, 항상 '만약 진보주의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무언가 작동하지 않으면, 그냥 더 많이 하면 된다"는 식이었습니다. 복용량을 늘리고 또 늘리는 거죠. 수억 달러를 쓰고 완전히 '워크(woke)'해지고, 모두가 당신을 싫어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아, 이건 아닌가 보다"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방향을 바꿉니다.

진행자:

그러니 친(親)트럼프적인 것은 아니군요.

피터 틸:

친트럼프적인 것은 아니지만, 공적인 대화와 사적인 대화 모두에서, 2024년의 트럼프주의와 포퓰리즘이, 피터가 외로운 지지자로 나섰던 2016년에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기술 혁신과 경제적 역동성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일종의 인식이 있는 겁니다.

진행자:

당신은 지금 그것을 정말, 정말 낙관적으로 표현하고 있군요.

피터 틸:
저는...

진행자:
사람들... 저는 당신이 비관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이것을 낙관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이 사람들이 실망할 것이고 실패하도록 설정되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피터 틸:
제 말은, 사람들은 많은 낙관론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말하는 전부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예산 적자가 우리를 모두 죽일 것이라는 종말론적 불안감을 표현했지만, 그는 정부에 들어갔고 그의 주변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와 파트너십을 맺고 기술적 위대함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하며 정부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들이 낙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큰 비관론이나 현실주의의 입장에서 오셨죠.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그들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당신의 평가입니다. 트럼프 2.0의 포퓰리즘이 당신에게 기술적 역동성을 위한 수단으로 보이나요?

피터 틸:
여전히 우리가 가진 선택지 중 단연 최고입니다. 하버드가 50년 동안 효과가 없었던 똑같은 일을 계속하면서 치매를 치료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행자:
그건 단지 "더 나빠질 수는 없으니 파괴를 택하자"는 주장이군요. 하지만 지금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은 이렇습니다. "실리콘밸리가 포퓰리스트들과 동맹을 맺었지만, 결국 포퓰리스트들은 과학에 관심이 없다. 그들은 하버드가 싫다는 이유만으로 하버드에 대한 지원금을 끊고 싶어 한다. 결국 당신들은 실리콘밸리가 원했던 미래에 대한 투자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게 틀렸나요?

피터 틸:
네, 하지만 우리는 이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과학이 배경에서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가?" 여기서 뉴딜 정책 지지자들이, 그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든 간에, 그들은 과학을 강력하게 밀어붙였고, 자금을 지원하고,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규모를 키웠습니다. 반면에 오늘날, 아인슈타인에 버금가는 인물이 백악관에 편지를 쓴다면, 그 편지는 우편물실에서 분실될 것이고 맨해튼 프로젝트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문샷(moonshot)'이라고 부를 때, 바이든이 암 연구에 대해 말했던 방식처럼, 60년대의 '문샷'은 여전히 달에 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지금의 '문샷'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완전히 허구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아, 그건 문샷이 필요해"라고 말하는 것은 "아폴로 계획이 필요해"라는 뜻이 아니라, "그건 절대,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야"라는 뜻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당신은 여전히, 어쩌면 실리콘밸리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포퓰리즘의 가치가 베일과 환상을 걷어내는 데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것을 건설하고, 맨해튼 프로젝트를 하고, 문샷을 하기를 기대하는 단계는 아니군요. 오히려 포퓰리즘이 우리에게 그것이 모두 가짜였다는 것을 보게 도와준다는 것에 가깝군요.

피터 틸:
둘 다 시도해야 하고, 그것들은 서로 매우 얽혀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규제 완화가 있고,

어느 시점에는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나 더 나은 설계의 발전소, 어쩌면 핵융합로까지 다시 짓게 될 겁니다. 그러니 네, 규제 완화적이고 해체적인 부분이 있고, 어느 시점에는 실제로 건설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죠. 네, 어떤 면에서는 판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진행자:

하지만 당신은 개인적으로 정치인 자금 지원을 중단했죠.

피터 틸: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정신분열적입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면서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유독합니다. 그래서 저는 왔다 갔다 합니다.

진행자:

당신 개인에게 유독하다는 건가요?

피터 틸:

모두에게요.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요. 제로섬 게임이고, 미친 짓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당신을 싫어하고 트럼프와 연관 짓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떻게 유독한가요?

피터 틸:

제로섬 세계에서는 그 판돈이 정말, 정말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유독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없던 적들이 생기게 되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유독합니다. '미래로 돌아가기'에는 정치적 차원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2024년에 일론과 나눴던 대화입니다. 우리는 이런 대화들을 많이 나눴죠. 저는 일론과 시스테인 버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가 이기지 못하면, 그냥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고 말했죠. 그러자 일론이 말했습니다. "갈 곳은 없어. 여기가 유일한 곳이야."

그리고 나중에는 항상 올바른 반론이 떠오르죠. 저녁 식사를 하고 집에 온 지 두 시간쯤 지나서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일론, 당신은 더 이상 화성에 가는 것을 믿지 않는구나." 2024년은 일론이 화성을 믿지 않게 된 해입니다. 어리석은 과학 기술 프로젝트로서가 아니라, 정치적 프로젝트로서 말입니다. 화성은 정치적 프로젝트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대안을 건설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2024년에 일론은, 만약 당신이 화성에 가더라도 사회주의적인 미국 정부, '워크(woke)'한 AI가 당신을 화성까지 따라올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선했던 일론과의 만남 중 가장 어리석었던 것은 그가 딥마인드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건 AI 회사죠. 네, 대화는 대략 이랬습니다. 데니스가 일론에게 말했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 초인적인 AI를 만들고 있지." 그러자 일론이 데니스에게 답했습니다. "글쎄, 나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 나는 우리를 행성 간 종족으로 만들고 있지." 그러자 데니스가 말했습니다. "음, 내 AI는 화성까지 당신을 따라갈 수 있을 거야." 그러자 일론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역사 해석에 따르면, 그 말이 일론에게 정말로 와닿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것을 처리하는 데 2024년까지 걸린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화성을 믿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그가 화성에 가기 위해 예산 적자나 '워크'주의에 대한 어떤 종류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결정했다는 뜻일 뿐입니다. 화성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과학 프로젝트일까요,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사회에 대한 높은 비전 같은 걸까요?

진행자:

네, 하인라인(SF 작가)처럼요. 수많은 자유지상주의자들의 낙원 같은 곳으로 채워진...

피터 탈:

글쎄요, 저는 그것이 그렇게 구체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구체화한다면, 아마도 화성이 단순한 과학 프로젝트 이상이어야 하고, 정치적 프로젝트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할 때, 당신은 "아, '워크'한 AI가 따라올 것이고, 사회주의 정부가 따라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당신은 그냥 화성에 가는 것 이상의 다른 무언가를 해야 할 겁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워크'한 AI. 인공지능은, 만약 우리가 여전히 정체 상태라면, 정체의 가장 큰 예외처럼 보입니다.

피터 탈:

네, 그 분야에서는... 네, 놀라운 진전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준 진전이죠.

진행자:

또한 우리가 방금 정치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곳은 트럼프 행정부가 AI 투자자들에게 한 발 물러서는 것과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들이 원했던 많은 것을 제공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진전과 정부 참여의 영역인 셈이죠. 그리고 당신은 AI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에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피터 탈:

글쎄요, 여러 층위가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은 AI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제 어리석은 대답은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는 크고, 우리 사회의 완전한 변혁보다는 작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잠정적인 결론은 90년대 후반의 인터넷과 거의 비슷한 규모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체를 끝내기에는 충분한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훌륭한 회사를 몇 개 만들 정도는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GDP에 몇 퍼센트 포인트를 더했고, 아마 10~15년 동안 매년 GDP 성장에 1% 정도를 더했을 겁니다. 생산성에도 어느 정도 기여했고요. 대략적으로 AI에 대한 제 잠정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하다는 사실은 너무 불균형해서 조금 불건전합니다. 저는 더 다차원적인 진보를 원합니다. 우리가 화성에 가고, 치매 치료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가진 것이 AI뿐이라면, 그것이라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물론 위험도 따릅니다. 이 기술에는 명백히 위험이 있습니다.

진행자:

당신은 회의론자군요. 하지만 당신은 소위 '초지능 연쇄 폭포 이론(superintelligence cascade theory)'에 회의적입니다. 이 이론은 기본적으로 AI가 성공하면 너무 똑똑해져서 우리에게 '원자의 세계'에서의 진보를 가져다준다는 것입니다. "좋아, 우리는 치매를 치료할 수 없고, 화성으로 가는 로켓을 만드는 완벽한 공장을 어떻게 지을지 알아낼 수 없지만, AI는 할 수 있어" 같은 거죠. 그리고 어느 시점에 특정 임계점을 넘으면, AI는 우리에게 더 많은 디지털 진보뿐만 아니라 64가지 다른 형태의 진보를 가져다준다는 겁니다. 당신은 그것을 믿지 않거나,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 같군요.

피터 탈:

네, 저는 왠지 그것이 정말로 '게이팅 팩터(gating factor, 결정적 제한 요소)'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진행자:
게이팅 팩터란 무슨 뜻인가요?

피터 틸:
아마 실리콘밸리 이데올로기일 겁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보수적인 것보다는 진보적인 것에 가깝지만, 실리콘밸리 사람들은 IQ에 정말 집착합니다. 모든 것은 똑똑한 사람들에 관한 것이고, 더 똑똑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위대한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경제학의 반대 주장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더 똑똑할수록 더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모르거나, 우리 사회가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그들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게이팅 팩터가 IQ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깊이 잘못된 무언가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그것은 지능의 한계인가요, 아니면 성격 유형의 문제인가요?

피터 틸:
글쎄요, 인간의 초지능이... 저는 그 아이디어에 매우 공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팟캐스트의 한 에피소드를 AI 가속주의자와 함께 했을 때 이 주장을 했습니다. 특정 문제들은 그냥 지능을 높이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지능을 높이면, 짠, 알츠하이머가 해결된다. 지능을 높이면, AI가 하룻밤 사이에 10억 개의 로봇을 만드는 자동화 과정을 알아낼 수 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능 회의론자입니다. 저는... 네, 아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든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항상 이런 것들은 증명하기 어렵죠.

하지만 초지능을 갖기 전까지는, 저도 당신의 직관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봐왔지만, 다른 이유들로 상황은 정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문제들은 해결 불가능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비관적인 견해죠. 어쩌면 치매 치료법은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깊이 해결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죽음에 대한 치료법은 없죠. 어쩌면 그것은 해결 불가능한 문제이거나, 아니면 이런 문화적인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들어맞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단적인 똑똑한 사람들을 용납하는가? 어쩌면 미친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단적인 똑똑한 사람들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AI가 단지 관습적으로만 똑똑하다면, 만약 우리가 '워크(woke)'를 다시 정의해서, 이념적인 것 말고 그냥 '순응주의적(conformist)'이라고 정의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변화를 만들어낼 종류의 똑똑함이 아닐 겁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당신은 AI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정체가 되는 그럴듯한 미래를 두려워하나요? 예를 들어, AI가 고도로 지능적이고 창의적이지만 순응주의적인 방식으로 말이죠. 넷플릭스 알고리즘처럼, 사람들이 보는 그저 그런 영화를 무한정 만들어내고, 그저 그런 아이디어를 무한정 생성하고, 많은 사람들을 실직시키고 쓸모없게 만들지만, 정체를 더 심화시키는 그런 미래 말입니다. 그것이 두려움인가요?

피터 틸:
사람들이 그냥 외주를 주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위험 요소입니다. 하지만 제가 결국 도달하는 지점은, 우리는 여전히 시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안은 완전한 정체뿐입니다. 네, 군사적 맥락에서 드론이 AI와 결합되는 등 온갖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좋습니다, 이건 좀 무섭거나 위험하거나 디스토피아적이거나 상황을 바꿀 겁니다. 하지만 AI가 없다면, 와,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터넷에 대한 논의의 한 버전입니다. 인터넷이 더 많은 순응주의와 '워크'주의로 이어졌는가? 네, 1999년에 자유지상주의자들이 환상에 빠졌던 것처럼 풍요롭고 다양한 아이디어의 폭발로 이어지지 않은 온갖 방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사실적으로, 저는 그것이 여전히 대안보다는 나았다고 주장할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인터넷이 없었다면, 아마도 상황은 더 나빴을 겁니다. 저는 그것이 대안보다 낫다고 장담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정체 주장이 여전히 강화되는 한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AI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암묵적으로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거의 완전한 정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항상 느낍니다.

진행자:

하지만 AI의 세계는 적어도 당신이 여기서 표현하는 것보다 더 유토피아적이고, 변혁적이며, 뭐라고 부르든 그런 기술관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앞서 현대 세계가 급진적인 수명 연장을 약속했지만 더 이상 그렇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인공지능에 깊이 관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일종의 트랜스휴머니즘, 즉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초월하는 메커니즘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제게는 매우 분명해 보입니다. 후계 종의 창조이든, 정신과 기계의 융합이든 말이죠. 당신은 그것이 모두 무관한 환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과대광고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들이 기계를 신을 만들 것이라고 허풍을 떨면서 돈을 모으려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과대광고인가요? 망상인가요? 당신이 걱정하는 무언가인가요? 당신은 인류가 계속되기를 선호할 것 같은데요. 망설이시는군요.

피터 틸:

글쎄요, 네, 저는 그럴 겁니다.

진행자:

긴 망설임이네요.

피터 틸:

아주 긴 망설임이죠. 너무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살아남아야 하는가? 네, 좋습니다. 하지만 저도... 저도 우리가 이 문제들을 급진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모르겠습니다. 네, 트랜스휴머니즘, 그 이상은 당신의 인간적인 자연적 신체가 불멸의 신체로 변형되는 급진적인 변혁이었습니다.

성적인 맥락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비판이 있죠. 여장남자는 옷을 갈아입고 다른 성별의 옷을 입는 사람이고, 성전환자는... 페니스를 질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수술이 얼마나 잘 되는지에 대해 토론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이상의 변혁을 원합니다. 비판은 그것이 이상하고 부자연스럽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봐요, 그건 너무 한심할 정도로 미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옷을 갈아입거나 성기를 바꾸는 것 이상을 원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당신의 심장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온몸을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통 기독교는, 그런데, 정통 기독교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는 비판은 충분히 멀리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트랜스휴머니즘은 단지 당신의 몸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영혼도 변화시켜야 하고, 당신의 자아 전체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진행자:

잠깐만요, 저는 당신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즉 종교가 과학과 과학적 진보의 아이디어에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신의 섭리라는 어떤 아이디어든

우리가 진보하고, 성취하고, 우리 조상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해냈다는 사실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독교의 약속은 결국 신의 은총을 통해 완성된 몸과 완성된 영혼을 얻는 것이고, 기계 문치를 가지고 스스로 그것을 하려는 사람은 디스토피아적 인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피터 털:

글쎄요, 이것을 명확히 해보죠. 그리고 당신은 다른 것을 말하는 이단적인 형태의 기독교를 가질 수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 '자연(nature)'이라는 단어는 구약성서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그리고 제가 이해하는 유대-기독교적 영감의 방식은, 그것이 자연을 초월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물을 극복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것은 사람들이 타락했다는 것이고, 기독교적 의미에서 자연스러운 것은 당신이 엉망진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것을 초월하고 극복해야 할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당신을 제외하고, 가상의 기계 신을 만들기 위해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야훼, 여호와, 만군의 주와 협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불멸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터 털:

네,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넘나들고 있네요. 그래서 다시, 제가 하던 비판은 그들이 충분히 야심 차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은 충분히 야심 차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글쎄, 그들은... 그들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충분히 야심 차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은 여전히 육체적으로 충분히 야심 찬가?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정말로 트랜스휴머니스트인가?

그리고 여기서, 좋습니다. 이봐요, 그 냉동인간 기술은 1999년의 복고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일은 그다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적인 몸에 대한 트랜스휴머니스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글쎄, 어쩌면 그것은 냉동인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업로딩에 관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좋습니다, 글쎄, 그건... 저는 제 몸을 갖고 싶습니다. 저를 시뮬레이션하는 컴퓨터 프로그램만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업로딩은 냉동인간보다 한 단계 아래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대화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점수를 매기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모두 꾸며내고 있고 모두 가짜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진행자:

당신은 일부는 가짜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피터 털:

'가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짜'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풍요로운 언어가 있고, 낙관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일론과 이 문제에 대해 나눴던 대화는, 그가 "우리는 10년 안에 미국에 10억 개의 인간형 로봇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글쎄,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예산 적자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엄청난 성장을 할 것이고, 그 성장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자, 글쎄, 그는 여전히 예산 적자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10억 개의 로봇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지만, 어쩌면 그가 그것을 충분히 생각해보지 않았거나, 그것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변혁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혹은 그것에 대한 오차 범위가 크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네, 어떤 면에서는 이 문제들이 충분히 생각되지 않았습니니다. 만약 제가 실리콘밸리에 대한 비판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항상 기술의 의미에 대해 서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는 "좋아, AI의 IQ, Hello 점수는 무엇인가? 그리고 정확히 AGI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와 같은 미시적인 것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없는 기술적 논쟁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제게 매우 중요해 보이는 중간 수준의 의미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산 적자에 대해 무엇을 의미하는가? 경제에 대해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정학에 대해 무엇을 의미하는가? 최근에 우리가 나눴던 대화 중 하나는, 그리고 제가 나눴던 것은, 그것이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계산을 바꾸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군사 분야에서 가속화되는 AI 혁명이 있는데, 중국이 뒤처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아마도 낙관적인 측면에서는, 그들이 사실상 쫓기 때문에 중국을 억제할 것인가? 그리고 비관적인 측면에서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가속화시킬 것인가? 만약 그들이 지금 대만을 잡지 못하면, 그들은 뒤처질 것이다.

어느 쪽이든, 이것은 꽤 중요한 것입니다. 충분히 생각되지 않았습니니다. 우리는 AI가 지정학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니다. 우리는 그것이 거시 경제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제가 우리가 더 밀어붙이기를 원하는 종류의 질문들입니다.

진행자:

당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매우 거시적인 질문도 있습니다. 여기서 종교의 실마리를 조금 당겨보겠습니다. 당신은 최근에 기독교적이고 종말론적인 개념인 '적그리스도(Antichrist)'에 대해 강연을 해오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적그리스도는 무엇인가요?

피터 틸:

시간이 얼마나 있죠?

진행자:

적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 있는 만큼 있습니다.

피터 틸:

알겠습니다. 글썄요, 항상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실존적 위험들, 도전 과제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것들은 모두 폭주하는 디스토피아적 과학 기술이라는 틀에 갇혀 있습니다. 핵전쟁의 위험, 환경 재앙의 위험, 아마도 기후 변화 같은 구체적인 것들, 아니면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다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생물학 무기의 위험도 있고요. 온갖 SF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당연히 AI와 관련된 특정 유형의 위험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실존적 위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런 틀을 가질 것이라면, 아마도 우리는 다른 종류의 나쁜 특이점, 즉 '단일 세계 전체주의 국가'라고 부를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람들이 이 모든 실존적 위험에 대해 내놓는 기본 정치적 해결책이 '단일 세계 정부'라고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핵무기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들을 통제할 실질적인 힘을 가진 유엔을 만들자. 그것들은 국제적인 정치 질서에 의해 통제된다.

그리고 이런 것은 AI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AI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전 지구적 컴퓨팅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모든 컴퓨터를 통제하고 모든 키 입력을 기록하여 사람들이 위험한 AI를 프로그래밍하지 못하도록 하는 단일 세계 정부가 필요하다." 저는 이것이 프라이팬에서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격은 아닌지 궁금해 왔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적 철학의 틀은 '하나의 세계,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one world or none)'입니다. 40년대 후반 미국 과학자 연맹이 내놓은 단편 영화였죠. 핵폭탄이 세상을 날려버리는 것으로 시작하고, 당연히 그것을 막기 위해 단일 세계 정부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하나의 세계,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기독교적 틀은, 어떤 면에서는 같은 질문인데, '적그리스도냐, 아마겟돈이냐?(Antichrist or armageddon?)'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단일 세계 국가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는 아마겟돈을 향해 몽유병자처럼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세계,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와 '적그리스도냐, 아마겟돈이냐'는 한 차원에서는 같은 질문입니다.

이제, 저는 이 주제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 질문은, 사람들이 썼던 모든 적그리스도 책들의 줄거리 구멍이 이것이었습시다.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세계를 장악하는가?" 그가 악마적이고 최면적인 연설을 하면 사람들이 그냥 넘어간다는 식입니다. 이것은 줄거리의 구멍입니다. 악마적이고, 완전히 비현실적이죠. 매우 비현실적인 줄거리 구멍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줄거리 구멍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장악하는 방법은, 당신이 '아마겟돈'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실존적 위험'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규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17, 18세기의 베이컨적 과학의 그림과는 정반대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장악할 기계를 발명하는 사악한 기술 천재, 사악한 과학자 같은 모습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을 너무 두려워합니다. 우리 세계에서 정치적 공명을 얻는 것은 그 반대입니다. 정치적 공명을 얻는 것은 "우리는 과학을 멈춰야 한다. 이것에 그냥 '멈춰'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네, 저는 17세기에 닥터 스트레인지러브나 에드워드 텔러 같은 인물이 세계를 장악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계에서는 그레타 툰베리가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진행자:

좋습니다, 그 두 가지 선택지 사이의 중간 지점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합리적인 두려움이 기술의 마법사 같은 것이었지만, 이제는 기술을 통제하고 안전하게 만들며, 당신의 관점에서는 일종의 보편적 정체를 가져올 것이라고 약속하는 누군가에 대한 두려움이 합리적이라는 것이군요.

피터 탈:

글쎄요, 그건 그것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한 제 설명에 가깝습니다. 제 생각에 사람들은 여전히 17세기형 적그리스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닥터 스트레인지러브를 두려워하죠.

진행자:

하지만 당신은 진짜 적그리스도는 그 두려움을 이용해 "스카이넷을 피하기 위해, 터미네이터를 피하기 위해, 핵 아마겟돈을 피하기 위해 나와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할 것이라고 하시는 거죠?

피터 틸:

네. 그리고 제 견해는, 지금 세상을 보면, 그 두려움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새로운 기술적 진보가 필요할 것이라는 겁니다.

진행자:

저는 세상이 평화와 규제를 약속하는 누군가에게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만약 세상이 AI가 모두를 파괴하려 한다고 확신하게 된다면 말이죠. 하지만 그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가속주의적 종말 시나리오 중 하나가 펼쳐지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와 안전을 내세우는 적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술적 진보가 필요합니다. 20세기 전체주의의 핵심 실패 중 하나는 지식의 문제였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죠. 그러니 평화와 안전을 내세우는 전체주의 통치를 돕기 위해서는 AI나 다른 무엇이 필요합니다.

본질적으로 당신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억제되고 정제된 전체주의를 강요하는 데 사용되는 진보의 폭발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바로 그곳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피터 틸:

글쎄요, 그레타 툰베리는 지중해의 보트 위에서 이스라엘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저는 단지 AI로부터의 안전, 기술로부터의 안전, 심지어 기후 변화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약속이 지금 당장 강력하고 보편적인 구호가 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가속화되는 변화와 완전한 재앙에 대한 실제적인 두려움 없이는요.

피터 틸:

이런 것들은 점수를 매기기가 너무 어렵지만, 저는 환경주의가 꽤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단일 세계 전체주의 국가를 만들 만큼 절대적으로 강력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봐요, 그것은... 저는 그것이 현재 형태로... 저는 유럽에서 사람들이 여전히 믿는 유일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이슬람 샤리아 율법이나 중국 공산주의 전체주의 장악보다 녹색 의제를 더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다른 미래에 대한 아이디어로서, 유럽에서 제공되는 세 가지는 녹색, 샤리아, 그리고 전체주의 공산 국가뿐입니다. 그리고 녹색이 단연 가장 강력하며, 쇠퇴하고 부패하는 유럽에서는...

진행자:

하지만 그것은 세계에서 지배적인 플레이어는 아닙니다.

피터 틸:

항상 맥락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핵 기술이 작동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정말 복잡한 역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네, 우리는 정말로 전체주의적인 단일 세계 국가에 도달하지는 않았습시다. 하지만 1970년대까지, 정체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은 기술의 폭주하는 진보가 매우 무서워졌고, 베이컨적 과학은 로스앨러모스에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습니다. 거기서 끝났습시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원하지 않았습시다.

그리고 찰스 맨슨이 60년대 후반에 LSD를 복용하고 사람들을 살해하기 시작했을 때, 그가 LSD에서 본 것, 그가 배운 것은 도스토옙스키의 반영웅처럼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찰스 맨슨이 된 것은 아니지만...

진행자:

하지만 역사의 결정적인 점은, 모든 사람이 찰스 맨슨만큼 정신이 나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찰스 맨슨은 적그리스도가 되어 세상을 장악하지 않았습니다.

피터 탈:

저는 단지... 우리는 종말론적인 이야기로 끝나고 있네요. 아니요, 하지만 1970년대 역사에 대한 제 설명은 히피들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지만 우리는 1969년 7월에 달에 착륙했습니다. 우드스톡은 3주 후에 시작되었죠. 그리고 돌이켜보면, 그때 진보가 멈췄고 히피들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네, 문자 그대로 찰스 맨슨은 아니었지만...

진행자:

저는 단지 적그리스도 이야기로 끝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좋아, 환경주의는 이미 반(反)정체적이다" 등등. 좋습니다, 그 모든 것에 동의합니다. 저는 단지 우리가 지금 적그리스도 아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체되어 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두려움에 의해 추진될, 정체를 영구적으로 만들 더 나쁜 무언가가 지평선에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로스앨러모스와 유사한 기술적 진보의 폭발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에 대한 제 매우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당신은 AI에 투자하고 있고, 팔런티어, 군사 기술, 감시 기술, 전쟁 기술 등에 깊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잡고 기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 세상에 질서를 강요하는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그 적그리스도가 아마도 당신이 만들고 있던 도구를 사용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그리스도는 "좋아, 우리는 더 이상 기술적 진보를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나는 팔런티어가 지금까지 한 일이 정말 마음에 들어"라고 하지 않을까요? 제 말은, 그것이 우려 사항이 아닌가요? 역사의 아이러니는, 공개적으로 적그리스도를 걱정하던 사람이 우연히 그의 등장을 앞당기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피터 탈:

보세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행자:

분명히 말해두지만, 저도 당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영구적인 권위주의 통치에 기꺼이 복종하는 세계에 어떻게 도달하는지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피터 탈: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묘사할 수 있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한 것이, 지난 50년간 전 세계가 '평화와 안전'에 복종해왔다는 정체에 대한 대체적인 설명으로서 그렇게 터무니없나요?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슬로건은 '평화와 안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FDA는 미국의 약물뿐만 아니라 사실상 전 세계를 규제합니다. 나머지 세계가 FDA에 따르기 때문이죠.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사실상 전 세계의 원자력 발전소를 규제합니다. 모듈형 원자로를 설계해서 아르헨티나에 그냥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아르헨티나 규제 당국을 신뢰하지 않고, 미국에 따를 겁니다.

그러니 적어도 이것은 우리가 왜 50년의 정체를 겪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 가지 답은 아이디어가 고갈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답은 허용되지 않는 문화적인 무언가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적 해답은 인류가 더 유순한 종으로 변모했다는 상향식 해답일 수도 있고,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정부라는 기구가 이 정체라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하향식

해답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원자력 같은 것이 21세기의 동력이 될 예정이었는데, 어찌 된 일인지 전 세계적으로 궤도에서 이탈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이미 적그리스도의 온건한 통치 아래 살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피터 톨:

하나님이 역사를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행자:

제 말은...

피터 톨:

다시 말하지만, 인간의 자유와 선택의 여지는 항상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날 우리가 있는 곳에서는, 이 문제들은 절대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신은 우리를 온건하고 보통 수준의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영원히 내버려 두지는 않으시겠죠. 이야기가 그렇게 끝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피터 톨:

하나님께 너무 많은 인과 관계를 돌리는 것은 항상 문제입니다. 제가 인용할 수 있는 다른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 요한복음 15장 25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길,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그를 박해할 이유나 원인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궁극적인 인과 관계 구절로 해석한다면, 그들은 "내가 박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일으키신다"고 말하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적 관점은 반(反) 칼뱅주의적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뒤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일으키신다고 말한다면...

진행자:

하지만 기다려 보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은 하나님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에 들어오시는 배후에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퇴폐적인 로마 제국의 정체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었기 때문이죠.

피터 톨:

글쎄요, 어느 시점에는, 어느 시점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겁니다. 저는, 저는 그렇게 칼뱅주의자는 아닙니다.

진행자:

하지만 그건 칼뱅주의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스크린을 쳐다보며 그레타 툰베리에게 설교를 듣는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분은 우리를 그 운명에 버려두지 않으실 겁니다.

피터 톨:

이것은... 좋은 나쁜든, 저는 인간의 행동, 인간의 자유를 위한 여지가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이 모든 것이 결정론적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냥 받아들이는 편이

낫겠죠. 사자들이 오고 있으니, 요가나 기도를 하며 명상하고 사자들이 당신을 잡아먹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당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행자:

아니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 저는 단지 희망을 가지려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간적 자유를 사용하여 적그리스도에 저항하려 할 때, 성공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요. 우리는 그 점에 동의할 수 있겠네요.

피터 톨:

좋습니다.

진행자:

피터 톨 씨,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터 톨:

감사합니다.